

2015년 3월 2일

Peach 가 취항 3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년째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더욱 가까운 “하늘을 나는 기차”로~

- 현재, 일본 간사이공항과 나하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선 10노선, 국제선 7노선 운항
- 3월 29일(일)부터, 도쿄(나리타)–삿포로(치토세), 후쿠오카를 신규 취항
-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 창조를 위한 도전은 계속 됩니다.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 본사: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가, 어제(3월 1일), 취항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Peach 는, 2012년 3월 1일에 오사카(간사이)–삿포로(신치토세),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노선을 1일 7왕복(14편)으로 첫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선 10노선, 국제선 7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8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취항 3주년을 맞아, Peach 대표이사 이노우에 신이치 CEO는, 「많은 고객님의 덕분으로 3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2년 3월 취항 이래, 8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탑승을 해 주셨고, 평균 탑승률 85.1%*을 기록, 취항 1년째, 2년째와 비교하여, 매년 그 수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Peach 가 “하늘을 나는 기차”로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정착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항 후 겨우 25개월 만에 단기 흑자를 실현하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LCC 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조건만 갖추어지면 성립될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 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선 개발과, 항공업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새로운 대응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 창조로의 도전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Peach 는, 3월 29일(일)부터, 나리타 공항을 거점화로 하는 그 첫 단계로, 도쿄(나리타)–삿포로(신치토세), 후쿠오카 등 2노선을 취항하며, 이후에는 간사이 공항, 나하 공항, 나리타 공항 이외의 공항을 거점화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each 는, 계속하여 적극적인 노선 개발을 도모하고, 저운임에 의한 신규 항공 수요를 착실하게 발생 시킴과 동시에, 여러가지 다양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 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4~12월의 평균 탑승률